

유아의 일상활동과 자기 주도성 : 미국과 한국

이 소 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미국과 한국은 경제구조에 있어서는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주도적인 사회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는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주도성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미국 중류계층과 노동계층 및 한국 중류계층과 노동계층이라는 상이한 사회 문화적 집단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28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유아로, 미국 Greensboro 거주 유아 20명과 한국의 수원 거주 유아 12명으로 구성하였다. 총 5725회의 관찰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빈도, 비율, phi coefficient 및 Cramer's V검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유아들의 일상활동이 소속된 사회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아동과 한국아동은 일상생활은 각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상이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아동이 활동을 주도하는 비율이 한국아동보다 높았다. 이러한 자기 주도성의 차이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계층별로 나타나 중류층아동이 활동을 주도하는 비율이 노동계층 아동보다 높았다.

* 이 논문은 1999년 충북대학교 발전재단기금의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주도성이 유아가 속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미국 중류계층과 노동계층 및 한국 중류계층과 노동계층이라는 상이한 사회 문화적 집단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경제구조에 있어서는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주도적인 사회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는 독립성(*independence*)에 기반한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기반한 집단주의(*collectivism*)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Cousins, 1989; Kim & Chun, 1994; Marsella, De Vos, & Hsu, 1985; Shweder, 1990; Stigler, Shweder, & Herdt, 1990; Triandis, 1989).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은 개인을 본질적으로 타인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간주하여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개성, 자율, 자주 및 정서적 독립을 강조한다. 집단주의가 우세한 한국은 개인들간의 연결을 중시하고 개별성보다 집단과의 조화, 결속, 소속감 및 정서적 유대를 중시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의 기본단위는 '나'인 반면, 한국은 '우리'이다.

한편 같은 미국이나 한국 내에서도 중류계층 (*middle class*)과 노동계층(*working class*)은 자기주도성(*self-direction*)과 동조성(*conformity*)이라는 상이한 사회 문화적 규범을 갖는다(Kohn, 1977, 1979).

상이한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은 삶의 조건을 다르게 경험하고, 사회적 실재나 바람직한 개인적 특질에 대한 상이한 개념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포부를 갖게 되며, 따라서 상이한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계층적 차이는 양육태도 및 신념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학자들(Cashmore & Goodnow, 1986; Kohn, 1979)은 다양한 사회에서 수행한 연구들을 통해 아동양육에 있어서도 중류층 사람들

은 자기주도성과 성취-학업적 성취를 포함한 것을 강조하는 반면, 하류층 사람들은 동조성과 복종을 중시한다고 보고하였다.

Vygotsky(1978, 1987)의 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발달은 아동 주위의 성인이 아동을 위해 구성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구조된다. 집단의 기존 구성원으로서 성인은 자신의 후손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장차 유능한 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화 기제가 되도록 일상활동을 배치한다. 따라서 아동의 일상적 활동은 아동이 속해 있는 집단의 주도적 사회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측은 상이한 문화권의 아동들의 일상활동을 관찰한 몇몇 연구들(이소은, 이완정, 1997; Lee, 1994; Lee & Tudge, 1995; Tudge, Lee, Tammeveski, Kulakova, Meltsas, & Putnam, S., 1997; Whiting & Whiting, 1975; Whiting & Edwards, 1988)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동양과 서양, 그리고 각 사회의 계층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사회 문화적 가치규범인 자기주도성이 유아의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비교문화적으로 밝힌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Bronfenbrenner, 1979, 1983; Kohn, 1977; Vygotsky, 1978)이 이론을 통해 주장한 바, 사회의 주요한 가치체계가 실제로 일상활동을 규정하는지 여부를 특히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관찰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중류계층과 노동계층을 대상으로 일상활동에서의 유아의 자기주도성이 유아가 속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가 참여하는 일상 활동의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자기주도성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일상활동에 대한 유아의 자기주도성은 개인주의의 가치규범을 지닌 국가와 집단주의의 규범을 지닌 국가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일상활동에 대한 유아의 자기주도성은 자기주도성의 가치규범을 지닌 계층과 동조성의 규범을 지닌 계층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¹⁾

본 연구의 대상은 일상활동에 대한 유아의 적극적인 언어적, 그리고 행동적 참여가 가능해지는 28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유아로, 미국 Greensboro 거주 유아 20명(남아 11, 여아 9)과 한국의 수원 거주 유아 12명(남아 6, 여아 6)이다. 미국유아의 평균연령은 36.7개월이며, 한국유아의 평균연령은 36.9개월이었다.

Greensboro와 수원은 도시의 규모면에서 중간정도이며, 유사한 문화적, 교육적 환경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상유아는 거주지역²⁾을 중심으로 각 도시의 중류계층과 노동계층에서 선정하였다. 계층에 따른 가치와 행동은 소득보다는 교육과 직업에 의해 결정되므로(Kohn, 1969, 1979),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보다는 교육수준과 직업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였다. 미국 중류계층의 경우 14세 이후의 어머니의 교육기간은 평균 8.1년, 아버지는 8.9년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Hollingshead 척도의 8(관리직, 준 전문직)에 해당하였다. 노동계층은 14세 이후 어머니의 교육기간은 평균 4.9년, 아버지는 4.6년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Hollingshead 척도의 4(숙련공)에 해당하였다. 한국 중류계층의 경우 14세 이후의 어머니의 교육기간은 평균 7.8년, 아버지는 8.2년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Hollingshead 척도의 9(관리직, 전문직)에 해당하였다. 노동계층은 14세 이후 어머니의 교육기간은 평균 3.5년, 아버지는 3.8년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Hollingshead 척도의 3(기계공, 준 숙련공)에 해당하였다.

- 1)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91년부터 시작된 CEYC(Cultural Ecology of Young Children) Project의 일부이다. CEYC Project는 각국의 아동의 삶을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장기 종단적으로 계획된 연구로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케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Tudge, J., Odeiro, D. (Univ. of North Carolina), Tammeveski, P. (Pennsylvania State Univ.), Meltsas, M. (Tartu Univ.), 이소은 (충북대학교), Kulakova, N. (Russian Academy of Sciences) 등이다. 최초의 자료는 1991년 1월에서 1992년 6월에 걸쳐 미국에서 수집되었으며, 한국 자료는 1993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집되었다. 최근에는 최초로 표집된 연구 대상을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 있으며, 1998년에 미국에서는 3차자료가, 한국에서는 2차자료가 수집되었다. 한국에서의 3차자료가 1999년 12월중에 수집될 예정이다.
- 2) 본 연구의 대상선정은 먼저 Greensboro와 수원에서 중류계층과 노동계층을 대표하는 거주지역(communitiy)을 선정한 후, 그 거주지역내에서 본 연구의 조건에 부합되는 유아와 그 가족을 표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중류계층과 노동계층의 거주지역은 지역내를 가로지르는 주요도로가 없고, 인종과 주거형태면에서 유사하며, 대로나 기차길 등으로 타지역과 경계 지워지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한국의 거주지역도 주거형태의 유사성 및 인접성을 기초로 계층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했으며, 각 지역내에서 본 연구의 조건에 부합되는 유아를 표집했다.

2. 연구도구

유아의 일상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Tudge, Putnam, Sidden, Rogoff와 Morelli (1990)가 개발한 CEYC(Cultural Ecology of Young Children)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교육, 일, 놀이, 및 대화의 4가지 핵심활동으로, 그 밖의 활동은 '기타'로 분류해서 산술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CEYC척도에서 '교육'은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놀이'는 오락적인 목적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일'은 경제적인 기여를 하거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한편 '대화'는 주제를 갖고 있는 지속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현재 진행중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행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교육이나 놀이, 일 등의 활동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언어적 상호작용은 대화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타' 활동에는 식사, 수면, 목욕 등의 활동과 핵심활동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유아가 실제로 참여한 활동과 유아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유아의 근접활동 반경내에서 일어난 활동을 '참여가능한 활동'과 '실제 참여활동'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유아주변에서 일어나는 제반활동의 종류 및 분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핵심활동 중 교육과 놀이는 여러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교육' 활동은 학업적 성취와 관련된 '학업교육', 에티켓이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예절교육', 물질이나 자연

의 운용과 관련된 '자연/기술교육', 그리고 종교적 교리나 활동과 관련된 '종교교육'의 4범주를 포함한다. '놀이' 활동은 타인의 역할을 가장하는 '가상놀이', 연극이나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청취활동을 포함하는 '관람놀이', 그리고 그 외의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도구없이 노는 모든 놀이를 총칭하는 '일반놀이'의 3범주로 구분된다.

핵심 활동 외에도 참여활동에 있어서의 유아의 역할, 활동 및 활동에 대한 유아의 참여를 주도한 사람, 유아의 파트너 및 파트너의 역할, 활동이 일어난 장소 등을 기록하며, 또한 연구자가 후에 기록된 자료를 보고 관찰된 시점에서 일어난 유아의 실제생활의 활동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주요활동 및 역할 등에 대한 간략한 서술적 기록을 첨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유아의 평소 일상활동을 최대한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관찰하기 위해, 관찰에 들어가기 전에 3회의 가정방문을 통해 유아 및 가족원들이 연구자의 존재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관찰은 6일 동안 총 20시간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관찰기간동안 유아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비방해적 자연 관찰방법(unobtrusive natural observation)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관찰시간은 6일 동안 유아가 깨어있는 시간³⁾을 모두 포함하도록 배분하며, 관찰자는 일정거리를 두고 대상유아를 관찰하면서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활동을 기록했다. 활동이 일어나는

3) 6일 동안의 관찰은 유아가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의 일과를 모두 포함하도록 배분하였다. 처음 이틀동안은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나머지 4일 동안은 4시간씩 관찰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날에는 관찰자간 신뢰도 산출 및 상호작용과정의 분석을 위해 2시간 동안 유아의 생활을 비디오로 촬영했다. 유아에게는 소형 송신기(microphone)를 부착하여 관찰자가 유아의 일상활동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에서 유아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들으면서 관찰을 수행하였다.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기록은 5분 간격으로 30초의 ‘관찰창(window)’을 정해 ‘관찰창’이 열렸을 때 유아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한정했다.

문화적인 격차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미국유아는 2명의 미국여성에 의해, 그리고 한국유아는 본 연구자에 의해 관찰되었다. 관찰자간의 신뢰도는 관찰기간 전에는 취학전 학교에서의 예비조사를 통해, 그리고 관찰기간 후에는 비디오로 촬영된 가정에서의 유아의 활동에 대해

산출하였으며, 관찰기간 전, 그리고 관찰기간 후의 신뢰도는 각각 85.7% 와 80.9%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각 지역의 유아에 대해 다른 횟수의 관찰이 행해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은 비율(proportion)에 대해 이루어졌다. 총 5725회의 관찰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통계기법으로는 빈도와 비율 및 두 집단간의 비율의 차이를 검증하는 phi coefficient test와 chi square가 사용되

표 1. 국가와 계층에 따른 활동에 대한 노출

	미국중류계층	미국노동계층	한국중류계층	한국노동계층
교육				
학업	1.8 (55)	0.5 (14)	2.1 (34)	0.9 (15)
예절	2.2 (70)	1.8 (48)	1.4 (22)	0.6 (10)
기술/자연	1.8 (57)	1.0 (27)	0.8 (13)	0.7 (11)
종교	0.1 (3)	0.2 (5)	0.0 (0)	0.0 (0)
계	5.9 (185)	3.5 (94)	4.3 (69)	2.2 (36)
일				
단순	13.2 (413)	15.3 (410)	15.1 (242)	19.0 (307)
복합	3.5 (108)	6.1 (163)	1.6 (26)	1.7 (28)
계	16.7 (521)	21.3 (573)	16.8 (268)	20.7 (335)
놀이				
가상	2.5 (78)	2.0 (53)	1.1 (17)	1.2 (20)
일반	22.6 (707)	28.4 (763)	36.9 (590)	36.8 (595)
관람	10.6 (330)	14.0 (375)	13.4 (214)	15.9 (257)
계	35.7(1115)	44.3(1191)	51.3 (821)	54.0 (872)
대화				
유아-유아	0.9 (29)	0.3 (9)	1.1 (18)	0.3 (5)
유아-성인	8.9 (279)	4.2 (113)	3.9 (63)	1.4 (23)
성인-성인	5.7 (177)	3.9 (105)	2.5 (40)	2.9 (47)
계	15.5 (485)	8.4 (227)	7.6 (121)	4.6 (75)
총 관찰창 수	100.0(3124)	100.0(2688)	100.0(1600)	100.0(1615)

note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든 표에서 () 밖의 숫자는 비율을 () 안의 숫자는 빈도를 나타낸다.

었으며, 모든 통계는 SPSS/WIN 프로그램으로 처리되었다.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일상활동 분포

유아가 참여하는 일상활동의 분포는 표 1과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유아가 실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유아의 근접활동 환경내에서 일어난 활동인 '참여가능한 활동'이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국가나 계층에 관계없이 유아의 주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활동은 놀이고(미국중류층 35.7

%, 노동계층 44.3%, 한국중류층 51.3%, 노동계층 54.0%), 가장 적게 일어난 활동은 교육이었다(미국중류층 5.9%, 노동계층 3.5%, 한국중류층 4.3%, 노동계층 2.2).

교육, 일, 놀이 및 대화의 4가지 핵심활동 각 항목별로 보면, 교육의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중류계층 유아가 노동계층 유아보다 학업, 예절, 및 기술/자연교육에 노출되는 비율이 많았다. 반면 유아의 생활에서 종교교육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일의 노출은 4집단 모두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기술적으로 복잡해 유아가 그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힘든 복합적 일이 유아주변에서 발생하

표 2. 국가와 계층에 따른 활동에 대한 참여

	미국중류계층	미국노동계층	한국중류계층	한국노동계층
교육				
학업	1.3 (41)	0.4 (11)	1.8 (28)	0.8 (13)
예절	1.6 (50)	1.7 (46)	1.4 (22)	0.6 (10)
기술/자연	1.6 (51)	0.9 (25)	0.8 (13)	0.7 (11)
종교	0.1 (3)	0.2 (5)	0.0 (0)	0.0 (0)
계	4.6 (145)	3.2 (87)	3.9 (63)	2.1 (34)
일				
단순	3.9 (121)	4.1 (109)	4.4 (71)	6.1 (98)
복합	0.8 (25)	0.9 (23)	0.3 (5)	0.3 (5)
계	4.7 (146)	4.9 (132)	4.8 (76)	6.4 (103)
놀이				
가상	2.4 (74)	1.9 (51)	0.9 (15)	1.2 (19)
일반	20.4 (637)	27.3 (734)	36.3 (580)	36.4 (588)
관람	5.8 (181)	8.0 (214)	8.8 (140)	11.0 (178)
계	28.6 (892)	37.2 (999)	45.9 (735)	48.6 (785)
대화				
유아-유아	0.6 (19)	0.3 (8)	1.1 (17)	0.3 (5)
유아-성인	7.1 (222)	3.6 (97)	3.7 (59)	1.3 (21)
성인-성인	1.0 (30)	0.6 (17)	0.9 (15)	0.4 (6)
계	8.7 (271)	4.5 (122)	5.7 (91)	2.0 (32)
기타	26.2 (818)	22.4 (603)	20.1 (321)	18.4 (297)
총계	72.7(2272)	72.3(1943)	80.4(1286)	77.5(1251)

는 비율이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도구없이 일하는 단순노동의 발생비율보다 적었다. 놀이는 유아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으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유아의 일상활동의 35%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한국유아가 놀이에 노출되는 비율은 50%이상이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유아가 가상세계에서의 역할을 가장하는 가상놀이에 노출되는 비율이 1-2%정도로 가장 적었고, TV 시청이나 음악, 영화감상 4등 관람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15%, 그 외의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도구없이 노는 '일반놀이'가 22-3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화는 현재 진행중인 교육이나 놀이, 일 등의 활동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언어적 상호의의 주제를 갖고 있는 지속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각 집단에서 대화에의 노출비율은 교육 다음으로 낮았다(미국중류층 15.5%, 노동계층 8.4%, 한국중류층 7.6%, 노동계층 4.6%).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화에의 노출은 국가 및 계층에 따른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 국가별로는 한국유아가 미국유아보다 대화에 노출되는 비율이, 그리고 계층별로는 노동계층유아가 중류층유아보다 대화에 노출 되는 비율이 적었다.

다음으로 표 2에는 유아가 실제로 참여한 활동인 '참여활동'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활동에 대한 유아의 참여비율은 72-80%로 나타나(미국중류층 72.7%, 노동계층 72.3%, 한국중류층 80.4%, 노동계층 77.5%), 근접 활동 반경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유아의 참여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활동에 대한 유아의 참여비율은 각 활동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여 교육, 놀이, 대화, 일의 순으로 참여비율이 낮아졌다. 이는 유아들이 교육이나 놀이가 주변에서 발생할 경우 자

신과 밀접히 관련된 활동으로 간주해 활발히 참여하나, 대화나 일의 경우에는 낮은 참여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대화의 경우 특히 성인과 성인간의 대화에 대한 유아의 참여도가 낮았고, 특히 주변에서 일이 진행될 경우 유아는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여, 유아는 활동의 성격상 자신과 상관없는 성인의 일이라고 간주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비록 가까운 곳에서 활동이 진행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주로 식사, 수면, 목욕 등의 생리현상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는 '기타' 활동범주는 18-26%가 관찰되었다. 기타활동은 핵심활동과 달리 유아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였는데, 모든 집단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났던 범주는 식사 및 간식 등의 먹기와 관련된 활동이었다(미국중류층 7.4%, 노동계층 8.1%, 한국중류층 9.3%, 노동계층 9.5%).

2. 활동에 따른 유아의 자기주도성

활동의 성격에 따른 유아의 자기주도성의 차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자기주도성은 활동에 대한 주도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의 주도이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모든 활동에 있어 유아가 스스로 활동을 주도하여 시작하는 비율보다는 이미 진행중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아 스스로가 주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 활동에 따른 유아의 자기주도성

	교육	일	놀이	대화	Cramer's V
활동	15.5 (51)	15.2 (83)	67.1(231 4)	47.0(25 2)	.261***
참여	39.5(13 0)	79.9(36 6)	91.4(310 7)	82.2(42 6)	.221***

*** p<.001

먼저 유아가 활동을 주도하는 비율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ramer's $V=$.261, $p<.001$). 각 활동별로 볼 때, 유아의 주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놀이(67.1%)였고 대화(47.0%), 교육(15.5%), 일(15.2%)의 순으로 주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활동에 대한 참여를 주도하는 비율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ramer's $V=$.221, $p<.001$). 참여에 대한 주도율은 놀이(91.4%), 대화(82.2%), 일(79.9%), 교육(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놀이, 대화 및 일의 경우 유아의 참여 주도율이 매우 높아 교육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활동에 유아가 참여하는 경우는 대부분 스스로 참여하기로 결정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육에 대한 참여 주도율은 40%정도로 나타나 유아의 주변에서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그 활동에 유아가 스스로 참여하기보다는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한 참여가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3. 국가에 따른 유아의 자기주도성

일상활동에 대한 유아의 자기주도성의 국가별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활동에 대한 자기 주도성은 국가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 교육($\phi=.167$, $p<.01$), 일($\phi=.183$, $p<.001$), 놀이($\phi=.118$, $p<.001$)에서 미국유아가 한국유아보다 활동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과 일을 주도하는 비율은 미국유아가 한국유아보다 3배정도 높았다.

활동에 대한 참여를 주도하는 비율은 활동에 대한 주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일과 놀이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행중인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주도하는 비율은 미국유아가 한국유아보다 높았으며($\phi=.154$, $p<.01$), 대

표 4. 국가에 따른 유아의 자기주도성

	미 국	한 국	평균차이	phi
활동				
교육	19.5 (45)	6.2 (6)	13.3	.167**
일	21.0 (65)	7.7 (18)	13.3	.183***
놀이	72.0(1379)	60.9(935)	11.1	.118***
대화	47.0 (194)	47.2 (58)	-0.2	.002
참여				
교육	44.4 (103)	27.8(27)	16.6	.154**
일	80.3 (224)	79.3(142)	1.0	.012
놀이	91.2(1716)	91.6(1391)	-0.4	.007
대화	80.0 (316)	89.4(110)	-9.4	.105*

* $p<.05$, ** $p<.01$, *** $p<.001$

화에 대한 참여를 주도하는 비율은 한국유아가 미국유아보다 높았다($\phi=.105$, $p<.05$).

4. 계층에 따른 유아의 자기주도성

마지막으로 표 5에는 계층에 따른 유아의 자기 주도성의 차이가 활동별로 제시되어 있다.

활동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계층별 차이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뚜렷했다. 미국의 경우 교육($\phi=.198$, $p<.01$), 일($\phi=.283$, $p<.001$), 그리고 대화($\phi=.156$, $p<.01$)에서 중류층 유아가 노동계층 유아보다 활동을 스스로 주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는 놀이에서만 계층차가 나타나 중류층 유아가 놀이를 스스로 시작하는 비율이 노동계층 유아보다 높았다($\phi=.093$, $p<.001$). 유의미한 계층차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흥미롭게도 한국노동계층에서는 유아가 교육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다.

활동에 대한 참여를 주도하는 비율은 활동에 대한 주도율보다 계층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교육($\phi=.280$, $p<.001$)과 대화($\phi=.173$,

표 5. 계층에 따른 유아의 자기주도성

	미국중류 계층	미국노동 계층	평균차이	phi	한국중류 계층	한국노동 계층	평균차이	phi
활동								
교육	25.5 (37)	9.3 (8)	16.2	.198**	9.5 (6)	0.0 (0)	9.5	.189
일	33.3 (48)	10.2 (17)	23.1	.283***	8.3 (8)	7.2 (10)	1.1	.021
놀이	72.5(635)	71.7(744)	0.8	.009	65.5(499)	56.4(436)	9.1	.093***
대화	52.6(143)	36.2 (51)	16.4	.156**	46.2 (42)	50.0 (16)	-3.8	.034
참여								
교육	55.2 (80)	26.4 (23)	28.8	.280***	34.9 (22)	14.7 (5)	20.2	.215*
일	81.4(118)	79.1(106)	2.3	.029	71.1 (54)	85.4 (88)	-14.3	.176*
놀이	89.7(793)	92.6(923)	-2.9	.051*	89.9(661)	93.2(730)	-3.3	.060*
대화	84.6(231)	69.7 (85)	14.9	.173***	90.1 (82)	87.5 (28)	2.6	.037

$p < .001$ 에서 중류층 유아는 노동계층 유아보다 진행중인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놀이에서는 중류층 유아보다 노동계층 유아의 참여주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hi = .01$, $p < .05$). 또한 한국에서도 교육($\phi = .215$, $p < .05$)에서는 중류층 유아의 참여주도율이 높았으나, 일($\phi = .176$, $p < .05$)과 놀이($\phi = .060$, $p < .05$)에서는 노동계층 유아의 참여주도율이 중류층 유아의 주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활동에 대한 주도율은 미국과 한국 모두 중류층 유아는 노동계층 유아보다 높았으나, 참여에 대한 주도율에서는 활동별로 보다 높은 주도율을 보이는 계층이 달라 계층에 따른 일관된 패턴을 도출할 수 없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상활동에 대한 유아의 자기주도성이 미국과 한국의 중산층과 노동계층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Vygotsky(1978, 1987)는 특정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도적인 사회 문화적 가치는 그 사회 구성

원들의 일상 “활동(activity)”에 반영되며, 그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가치를 내재화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며, 아동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사고와 행동 방식을 습득한다. 여러 학자(Cousins, 1989; Kim & Chun, 1994; Marsella, De Vos, & Hsu, 1985; Shweder, 1990; Stigler, Shweder, & Herdt, 1990; Triandis, 1989)들이 제시하듯이 미국과 한국은 독립성(independence)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는 상이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나라 내에서도 중류계층(middle class)과 노동계층(working class)은 자기주도성(self-direction)과 동조성(conformity)이라는 상이한 사회 문화적 규범을 갖는다(Kohn, 1977, 1979).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도적인 문화적 규범에서의 국가 및 계층에 따른 차이가 유아의 일상활동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여러 학자들(Bronfenbrenner, 1979, 1988; Kohn, 1977; Vygotsky, 1978)이 이론을 통해 주장한 특정 사회

의 가치와 일상활동의 연계성을 실제 관찰을 통해 밝히고, 그런 일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다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를 습득해 가는 순환적 연계고리를 제시해 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생활의 주요 구성요소인 교육, 일, 놀이 및 대화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관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국가나 계층에 관계없이 놀이는 유아의 주위에서 일어난 활동의 1/3이상을 차지해 유아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었고, 다음으로 일, 대화,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생활에서 발생률이 가장 낮은 활동인 교육의 경우 계층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 미국과 한국 모두 중류계층 유아가 노동계층 유아보다 교육에 노출되는 비율이 많았다. 이는 유아양육에 있어서도 중류층 사람들은 학업적 성취를 보다 강조한다는 학자들(Cashmore & Goodnow, 1986; Kohn, 1979)의 연구와 부합한다.

대화에서의 노출에서도 국가 및 계층에 따른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 국가별로는 한국유아가 미국 유아보다 대화에 노출되는 비율이, 그리고 계층별로는 노동계층 유아가 중류층 유아보다 대화에 노출되는 비율이 적었다. 연구자들(Barnlund, 1975; Clancy, 1986; Okabe, 1987; Tsujimura, 1987, Yum, 1987)이 주장했듯이 이는 논리적 언변이 존중되는 독립문화권과 침묵이 미덕이라고 간주되는 상호의존성의 문화권의 차이, 그리고 Kohn(1977, 1979)이 지적하듯이 자신의 사고와 입장에 대한 확실한 표현이 전제가 되는 중류층의 자기주도성과 제도권에 대한 복종이 보다 중시되는 노동계층의 동조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활동에 대한 참여의 경우, 각 활동의 성격에 따

라 유아의 참여율이 상이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먼저 전체 활동에 대한 유아의 참여율은 70%이상으로 근접활동 반경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유아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았다. 활동유형에 따른 유아의 참여비율은 교육, 놀이, 대화, 일의 순으로 나타나, 유아는 자신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놀이에는 활발히 참여하나, 자신이 직접적 주체가 되는 경우가 비교적 낮은 대화나 일에는 보다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유아가 일상활동을 스스로 주도하는 비율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여, 활동에 대한 주도율은 놀이(67.1%), 대화(47.0%), 교육(15.5%), 일(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미 진행중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주도하는 비율은 놀이(91.4%), 대화(82.2%), 일(79.9%), 교육(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활동에 있어 유아가 스스로 활동을 주도하여 시작하는 비율보다는 이미 진행중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아 스스로가 주도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에 있어 유아의 참여주도율은 매우 높아 진행중인 활동에 유아가 참여하는 경우는 스스로 참여하기로 결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발달은 인생의 초기부터 공동건설(coconstruction)에 의해 진행된다는 학자들의 주장과 부합된다(Bronfenbrenner, 1979, 1988, 1994; Vygotsky, 1978, 1987). 본 연구에 참여한 28-48개월 사이의 유아는 일반적으로 주변환경의 영향만을 받기보다는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참여의 주도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발달을 주도해 갔다.

일상활동에 대한 유아의 자기주도성에서는 국가별 차이 및 계층별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교육, 일 놀이에서 미국유아가 한국유아보다 활동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

히 교육과 일을 주도하는 비율은 미국유아가 한국유아보다 3배정도 높았다. 활동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계층별 차이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뚜렷해, 교육, 일 및 대화에서 중류층 유아가 노동계층 유아보다 활동을 스스로 주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놀이에서만 계층차가 나타나 중류층 유아가 놀이를 스스로 시작하는 비율이 노동계층 유아보다 높았다. 한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주도하는 비율은 활동에 대한 주도율보다 국가 및 계층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활동에 대한 주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Cousins, 1989; Kim & Chun, 1994; Marsella, De Vos, & Hsu, 1985; Shweder, 1990; Stigler, Shweder, & Herdt, 1990; Triandis, 1989)이 지적한 한국과 미국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독립성에 기반한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의 유아가 집단주의 문화권의 한국유아보다 일상활동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기회를 더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류계층 유아가 노동계층 유아보다 일상생활에서 자기주도성을 더 빈번히 보이는 결과는 Kohn(1977, 1979)이 주장한 자기주도성과 동조성으로 대별되는 계층적 가치의 차이가 유아의 일상생활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의 결과는, 계층적 차이는 미국과 한국의 주도적 가치규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회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료는 유아의 활동은 유아가 속한 집단의 주도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Vygotsky(1978, 1987)의 논의를 지지한다. 미국과 한국 유아는 각 사회의 사회 문화적 가치,

즉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그러한 가치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며, 같은 현상이 자기주도성과 동조성의 가치로 구분되는 중류계층과 노동계층 유아의 일상생활에서도 관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가 일상생활을 통해 접하는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는 유아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집단의 주도적 가치규범에 의해 상당부분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유아는 4세 이전에 이미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장차 유능한 성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관찰을 통해 일회적인 발달결과에 대한 측정이 아닌, 자연적이고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발달의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상이한 문화권의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유아가 속해 있는 문화권의 주도적 가치와 사회화 과정의 연계고리를 밝혀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관찰방법의 특성상 연구에 참여한 대상유아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둘째, 사회 문화적 가치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유아의 인성, 기질이나 지능 등 아동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본 연구는 문화권간의 차이 외에 단일한 문화권내에서 개인차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셋째, 발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다. Bronfenbrenner(1994)가 인간-과정-맥락-시간 모델(person-process-context-time model)을 통해 주장했듯이 발달이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달과정은 종단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령은

아동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후구를 통해 유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를 습득하는 과정이 연령의 증가되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소은, 이완정 (1997). 거주지 계층에 따른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아동의 활동분석, *아동학회지*, 18, 5-17.
- Barnlund, D. C.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ve styles of two cultures*. Tokyo: Simul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Bronfenbrenner, U. (1988). Interacting systems in human development. Research paradigm Present and future. In N. Bolder, A. Caspi, G. Downey, & M. Moorehouse (Eds.), *Persons in context: Developmental processes* (pp. 25-49).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Bronfenbrenner, U. (1994). The process-person-context model in developmental research: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 Cha, J. (1994).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157-174). Thousand Oaks, CA :Sage.
- Clancy, P. M. (1986). The acquisition of communicative style in Japanese. In B. Schieffelin, & E. Ochs(Eds.), *Language socialization across cultures*(pp.213-2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usins, S. 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Hollingshead, A. B. (1975). *Four-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Unpublished manuscript, Yal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New Heaven, CT.
- Kim, U. & Chun, M. B. J. (1994). Educational success of Asian Americans: An indigenous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29-343.
- Kohn, M. L.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l.: Dorsey Press.
- Kohn, M. L. (1977).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n, M. L. (1979). The effect of social class on parental values and practices. In D. Reiss & H. Hoffman (Eds.), *The American family: Dying or developing?* (pp. 45-68). New York: Plenum.
- Kohn, M. L. & Slomczynski, K. M. (1990). *Social structure and self-dir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Poland*. Oxford: Basil Blackwell.
- Lee, S. (1994). *Culture and preschoolers' activitie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Lee, S. & Tudge, J. (1995). *Young children's play in 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ross-cultural and sub-cultural comparisons*. A

-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Cross-Cultural Research, Savannah, GA.
- Marsella, A., De Vos, G., & Hsu, F. L. K.(1985). *Culture and Self*. London: Tavistock.
- Minturn, L., & Lambert, W. (1964). *Mothers of six cultures*. New York: Wiley.
- Okabe, K. (1987). Indirect speech acts of the Japanese. In D. Kincaid(Ed.), *Communication theory: Eastern and western perspectives* (pp.127- 136). New York: Academic Press.
- Schwartzman, H. B. (1976). The anthropological study of children's pla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5, 289-328.
- Schwartzman, H. B. (1979).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play. In B. Sutton-Smith (Ed.), *Play and learning*. New York: Gardner Press.
- Shweder, R. A. (1990). Cultural psychology: What is it? In J. W. Stigler, R. A. Shweder, & G. Herdt (Eds.),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pp.1-46).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igler, J. W., Shweder, R. A., & Herdt, G. (Eds.). (1990).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udge, J., Lee, S., Tammeveski, P., Kulakova, N., Meltsas, M., & Putnam, S. (1997). *Cultural heterogeneity: Preschoolers'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Russia, and Estonia*. A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Tudge, J., Putnam, S. & Sidden, J. (1993). Preschoolers' activities in socio-cultural context. *Quarterly Newsletter of the Laboratory of Comparative Human Cognition*, 15, 71-84.
- Tudge, J., Sidden, J., & Putnam, S. (1990). *The cultural ecology of young children*. Coding manual, unpublished.
- Tsujimura, A. (1987). Som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ways of communication. In D. Kincaid (Ed.), *Communication theory: Eastern and western perspectives* (pp.115-126). New York: Academic Press.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L. S. (1987). *The collected works of L. S. Vygotsky, Vol. 1*. New York: Plenum.
- Whiting, B. B., & Edwards, C. P. (1988). *Children of different worlds: The formation of social behavio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hiting, B. B., & Whiting, J. W. M. (1975). *Children of six cultures: A psycho-cultural analysi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239-250). Thousand Oaks, CA :Sage.
- Yum, J. (1987). Korean philosophy and communication. In D. Kincaid (Ed.), *Communication theory: Eastern and western perspectives* (pp.71-86). New York: Academic Press.

Preschoolers' daily activities and self-direction: the US and Korea

Lee, Soeun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ariation in preschoolers' daily activities and self-direction both within and across the US and Korea. For this purpose, observations were made of the types of activities available for young children and initiators of those activities.

Participants, ranging age from 28 to 40 months, were drawn from four cultural groups: middle and working class communities of the US and Korea. Data were obtain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preschoolers' daily life in natural settings. A total of 5725 observation from 32 preschool children (20 from the US and 12 from Korea) were used in the analyses. To test the differences between nations and/or classes, phi coefficient and chi square tests were employed.

The results indicate that preschoolers' activities varied as a function of class differences as well as societal differences. US and Korean children experienced different types of daily activities that reflected socio-cultural values of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i.e., independence in the US and interdependence in Korea. US children were observed to be more self-directed than Korean children. In both societies, however, middle class children were more likely than their working class counterparts to be self-directed.